



人蔘, 高血壓치료에 효과 발표

— 加 McMaster 研究팀,
人蔘類 수요증가 기대 —

캐나다에서는 약초(Medicinalherbs)에 대한 일반의 인식 및 수요증가와 함께 오랜 역사를 지닌 民間요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캐나다 Hamilton 소재 McMaster 대학의 생약(Biomedical Science)교수인 Chi-Yin Kwan 씨는 인삼에 함유되어 있는 Sarponin 의 혈압강하 작용을 생화학적으로 밝힘으로써 현지 제약업체 및 인삼근 재배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바 있다.

meter 의 축소)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Calcium blocker 가 역할을 인삼 Sarponin 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생화학적으로 밝힌 연구로서, 특히 고혈압의 치료제로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합성 Calcium blocker 가 무차별적으로 작용하는데 반해, 인삼 Sarponin 은 선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고혈압치료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Galexo Canada Inc. (英國 최대 제약회사인 Galexo Holdings PLS 의 자회사)는 평가했다.

캐나다에서 인삼류는 그동안 주로 건강식품으로 선호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 수년간 홍콩 등 아시아국가에서의 이민이 급증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며 더구나 요즘에는 현지 캐나다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삼류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삼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등 연구내용이 발표됨으로써 현지 캐나다인들의 인삼류 수요는 더욱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輸入실적 (단위 : C\$ 천)

국 별	1988	1989	90.1~6
미 국	1,085	848	684
한 국	1,010	1,110	-
중 국	830	1,199	290
홍 콩	727	562	189
기 타	34	89	145
합 계	3,686	3,808	1,308

[자료 : Statistics Canada]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고혈압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칼슘의 혈관세포내 과다유입과 이로 인한 혈관팽창(혈관 Dia-

EC, UR 農産物 協商입장 채택 실패

— EC 頂上會談에서도
合意點 찾지 못해 —

난관에 봉착한 EC 의 우루과이라운드 農産物 협상입장을 재협의키 위해 EC 農産物 이사회와 EC 外務相 이사회간 합동회의가 10월 26일, 27일 오전 룩셈부르크에서 개



최 되었으나 獨逸과 프랑스의 강경한 입장으로 최종 결정을 보지 못하고 10월 27일, 28일 로마에서 개최된 특별 EC 頂上會談에 상정 되었다.

그러나 EC 頂上會談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우루과이라운드가 긍정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EC는 최대한의 기여를 할 것이라는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와같이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원인은 우루과이라운드 協商 결과 결국에 가서는 域外產 低價 농산물의 대량 EC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보장조치를 요구하는 있는 프랑스측 주장에 EC 執行委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 EC 頂上會談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우루과이라운드 農產物 協商 입장전은 10월 30일 EC 外務相 이사회와 EC 農業相 이사회간 합동회의에서 다시 협의될 예정인데, 이러한 협의부진에 대해 대처首相은 아직까지 우루과이라운드 農產物 協商데이블에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先進國은 EC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EC 正常會談에서 이와같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등한시하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EMU나 정치동맹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비난했다.

□ 評 價

이러한 EC 農產物 協商 입장채택의 난항은 회원국간 의견차이에도 문제가 있지만 Mac Sharry 農業문제담당 EC 집행위원과 Andriessen 對外問題담당 EC 집행위원간의 의견차이가 심해 그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driessen EC 집행위원은 美國과 Cairns 그룹이 당초 EC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않은 상황에서

EC가 보다 경색적인 입장을 채택한다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콩 先物거래가격 急落

— 美國등 수확증가 및 世界 需要감소 겹쳐 —

美國의 금년도 콩 수확인 예상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수요 감소까지 겹쳐 선물거래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내년 중반까지 변동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여 국제거래가격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월 13일 현재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91년 1월 인도분이 부셸당 5.7500弗에 거래되어 10월초의 6.3475弗에 비해 9.3%가 하락했다.

이와같은 콩 선물가격의 급락은 당초 농무부의 금년도 수확예상량 발표치가 최대폭 작이었던 88년 수준을 넘어서는 18억 4천만 부셸이었으나 다시 19억부셸로 4% 인상 조정되어 충분한 공급이 예상되는데다가 세계 주요국의 콩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0월 현재 美國·브라질·아르헨티나產 콩에 대한 세계 수요는 88년 수준을 크게 밀돌고 있으며 89년에 비해서도 2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수요감소가 초래된 요인은 먼저 금년가을 유럽의 주요 작물인 Rapeseed의 기록적인 풍작으로 콩의 수입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고 中東사태와 유가인상에 따른 경



제성장 둔화로 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며 美國産 콩의 최대 수요국인 소련에 대한 美國의 신용공여가 타결되지 않아 수입을 미루고 있는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중에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농산물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도 콩 거래가격 급락의 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문제에 있어 EC가 '10년 간에 걸쳐 보조금지급 30% 삭감'의 소극적 입장을 고집하고 있고 美國·濠洲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 그룹에서 EC案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농업보조금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美國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쟁적인 보조금지급으로 콩을 비롯한 주요 곡물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요 곡물 선물거래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내에 콩 가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현재 파종이 진행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의 기상악화가 유일한 변수였으나 이상없이 파종이 진행, 내년봄 수확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여 국제거래가격의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美洲-乾-AM-1330)

日, 食料品 輸入 꾸준히 확대

— 美國이 30% 점유,
輸入自由化품목도 급증 —

최근 日本무역진흥회(JETRO)가 발표한 금년도판 '農林水産物 무역'자료에 의하면

식료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첫째 금년 상반기의 식료품 수입액은 전년동기비 1.1% 감소한 157억6천만弗이었으나 엔低의 요소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증가했고

둘째, 美國의 세어가 31.5%로 실질적으로 확대추세에 있으며

셋째, 과즙 등 수입자유화품목의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는 12월의 합의를 향해 관세무역일반협정, 다각적 무역교섭에서 농업보호문제가 의제로 채택되고 있는 가운데 日本은 계속 식료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식료품 수입액은 85년의 175억9천만弗에서 89년에는 86% 증가한 325억9천만弗로 확대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평균 14.3%의 엔低 가운데서도 157억6천만弗에 달했던 점에 비취 금년에는 전년수준을 초과할 전망이다.

특히 日本은 美國제품의 압도적인 주시장으로 쇠고기·돼지고기 등 주요 10개 품목 중 7개 품목에서 日本이 美國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 되고 있다.

美國의 對日 수출액은 엔低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0.4% 감소한 51억3천만弗이나 실질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곡물을 중심으로 하는 저부가가치 농산물에서 슬라이드 및 커트한 가공제품의 수출을 강화함으로써 日本시장 침투를 꾀하고 있다.

즉 식료품에 관한한 美國의 對日 무역적자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품목별로 보면 수입자유화품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년 4월 자유화된 아이스크림류는 전년동기비 5.2배인 240만弗



에 달하는 외에 건강붐에 편승한 사과 과즙 등이 3.4 배인 3,800만弗, 포도·파인애플 과즙 등이 2.4 배인 1,600 만弗로 증가했다.

酒稅法이 개정된 알콜음료는 브랜디·위스키·와인이 30~50% 증가함으로써 EC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무역의 자유화 추세,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對日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한 日本정부의 무역촉진 해소수단에 따른 것으로 농산물 등 식료품의 수입과 자유화품목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우리나라의 농축수산물업체는 日本의 엄격한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종래의 1차산품 수출중심에서 보다 가공된 한단계위의 가공식품수출에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다.(亞中—성—AO-1466)

美·EC, UR 農産物 협상 타결 難望

— 서비스·織細 등 其他분야에도 파급될 듯 —

지난주 로마에서 개최된 EC 정상회담에서 향후 10년간 30%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삭감을 요구하는 美國의 요구에 대해 12월 2일로 예정된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獨逸의 현집권당(기민당)이 농민의 지지를 의식, 이를 강력히 거부했고, 국내사정을 앞세운 프랑스도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로마회담이 별다른 소득없이 끝남에 따라 현재 예

정된 제네바 GATT 회원국 비공식협상과 끝 이어질 EC 농업 및 통상장관 회담에서 실마리를 풀지 못할 경우 12월초로 예정된 각료회담을 통한 막바지 협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Cairns Group은 EC 국가들의 막대한 정책적 농산물수출보조금을 삭감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UR 농산물 협상대열에서 탈퇴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시사함으로써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UR 협상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현재 美·EC 농산물교역 협상의 난항은 서비스·섬유·통신 등 기타분야에서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와 서로가 감정적인 보복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현재의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12월초 예정된 UR 타결시한을 연장시키는 방안이 일부 협상당사자로부터 제기되었으나 현재 의회로부터 내년 2월말까지만 협상권을 위임받고 시간에 쫓기고 있는 美國의 칼라힐스 USTR 대표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C 국가들의 자국시장보호정책을 지난 한 해동안에만도 110억弗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美 농산물수출업자들을 고려해야 하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EC 국가들을 상대로 완강한 정책을 계속 밀고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美·EC, 肉類분쟁 再燃 움직임



— UR農産物협상에
큰 타격줄듯 —

최근 UR 협상이 EC와 美國간의 농산물 보조금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EC가 美國産 육류(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함에 따라 UR 협상에 새로운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

EC는 美國産 육류가 기생충의 일종인 선모충(Trichina)에 대한 위생관리가 미흡한 점을 이유로 10월 31일부로 美國産 돼지고기의 EC내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美國産 쇠고기에 대해서도 12월 31일부로 유사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美행정부는 美國産 육류가 높은 수준의 위생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EC가 내세우고 있는 위생문제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며, 실재적으로는 농업보조금으로 인해 공급초과상태에 있는 EC産 육류를 자체 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美육류수출조합(US Meat Export Federation)의 Philip Seng 회장은 美國내 업체를 대표해 EC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강경히 대처해야 할 것을 美행정부에 촉구했는데, 美행정부는 금주내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ulius Katz USTR 부대표는 현재 적절한 모든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음).

현지 전문가들은 美행정부가 EC산 육류의 美國내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74 통상법 301조를 발동해서 EC의 수입금지조치로 인해 美國이 입게되는 피해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여타 EC産제품의 美國내 수입을 금지시키는 2가지 조치중의 하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

다.

□ 評 價

美·EC간 육류 분쟁은 87년말 EC가 美國産 호르몬 함유 쇠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이에대해 美國이 보복조치를 발동함으로써(89년 1월 1일) 발단되어 현재 美·EC 농산물 분류의 대표적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르몬 쇠고기 건은 양측이 Task Force를 구성(89년 2월) 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규제조치를 완화하고(89년 3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금번의 Trichina 건 발발로 美·EC간 육류분쟁은 다시 악화될 소지가 크다.

이처럼 美·EC간의 육류수입 문제가 새로이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금년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GATT UR협상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DI-4405)

수출희망업체 소개

- 中國西安花粉公司 (Mr. Shu Zhong)
 - 전화 55176
 - 中國 西安市 小寨興善寺 西街 22
 - 주요제품: 화분캡슐, 화분엑기스등
- Fuyang City Grain, Oil & Food Factory Anhui China (Mr. Tang Haa Feng)
 - FAX 0558 66419
 - No.5, Liau Hua Road, Fuyong city, Anhui, China
 - 식품일반, 유지등